

《정감록》, 매혹과 신비의 베일에 싸인 난세의 예언서

위서(僞書)의 사회사 — 5

김삼웅 | (대한매일) 주필

“《정감록》은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풍수설에 따라 점복으로 예언된 피난처에서만 지극한 복락을 누릴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씨 왕조가 멸망하고 정씨 성을 가진 진인이 출현해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리라는 것이 중심내용을 이루고 있다. 역대 왕권이 가혹하게 탄압하고 금서조처를 내렸지만 《정감록》이 꾸준히 민간에 전승됐던 것은, 현세를 벗어나서 계명산천을 맞이하려는 민중의 염원이 바탕에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읽히고 사랑받고 문학사로나 사회변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책으로 《춘향전》《심청전》과 함께 《정감록(鄭鑑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 책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저자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정감록》의 저자와 저작연대는 명확하지 않다. 신라 말엽의 중도선이라는 설도 있고, 고려말의 무학대사라는 설도 있으며 정지상 혹은 정도전이라는 설도 있다. 보통 말하는 《정감록》은 책 이름 이라기보다는 정체불명의 기서(奇書)에 담겨 있는, 말세에 대한 민간 예언 신앙을 모두 가리킨다. 이것이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무수한 《정감록》류의 비결(秘訣)로 나타났다. <감결(鑑訣)> <역대왕도본궁수> <동국역대본궁음양결> 등을 묶어서 《정감록》이라 부르기도 한다.

사회변혁기에 나타난 '괴서'

좁은 의미의 《정감록》은 이 담(李湛)이라는 사람이 이씨(李氏)의 대를 잇게 될 정씨(鄭氏)의 조상인 정 감(鄭鑑)이란 사람에게 들었다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은 이씨 이후 조선의 흥망대세를 적고 있다. 이씨가 한양에서 몇백 년 동안 통치한 다음 정씨가 계룡산에 도읍을 정해 몇백 년을 잇는다고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씨(趙氏)가 가야산에 몇백 년을 이으며, 차례로 범씨(范氏)가 완산에서 몇백 년, 왕씨(王氏)가 몇백 년 하는 식으로 왕조가 이어지리라고 예언했다. 그러고는 그 사이사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재난이 닥쳐올지, 어떤 화변이 있어 민심이 이리저리 갈리게 될 것인지 일일이 언급하고 있다.

오늘날 세간에 나돌고 있는 《정감록》은 이 두 사람의 문답 외에도 도선, 무학대사, 토정 이지함 등이 쓴 예언서에서 발췌한 내용들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정작 정 감과 이 담이 실존인물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정감록》에 대한 문헌으로는 1785년(정조 9년) 홍복영(洪福榮)의 옥사와 관련해 언급된 것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이씨 조선이 정씨의 역성혁명을 만나게 된다는 설은 선조 이전부터 있었다. 1589년(선조 22년)에 일어났던 정여립의 역모도 이런 사상이 배경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남선은 《조선상식문답》(민속원)에서 《정감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정 감과 이 담이란 이는 다 실재 인물이라 할 빙거가 없으며 또 조선 고래의 예언서로 역대실록 같은데 그 명목을 전하는 것이 수십종이지만 《정감록》이란 것은 그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니까 《정감록》이란 것이 생긴 것은 그리 오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씨 조선이 정씨의 혁명을 만난다는 운명설은 선조조 전으로부터 행하여 선조 을축(乙丑)의 정여립 역모란 것이 실로 이를 배경으로 하였으며 그 뒤 광해군·인조 이하의 모든 혁명운동에는 정씨와 계룡산의 그림자가 반드시 어른거려서 거의 예외가 없고 정조 을사(乙巳)의 홍복영의 옥사에는 《정감록》이란 명칭이 분명히 나오니 대개 《정감록》이란 것은 선조조로부터 정조조에 이르는 어느 시기에 혁명운동상 필요로서 자료를 민간신앙 방면에 취하여 미래국도의 희망적 표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 《비변사 등록》 제105책(영조 15년 6월 15일 조)에 《정감록》의 공식명칭이 나타나지만, 《정감록》을 의미하는 정진인(鄭真人)에 관한 이야기는 숙종 23년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

조선왕조의 철학적 기반 부정한 반역적인 사상서

연산군 이래 지속된 국정의 문란과 임진·병자의 양란, 그리고 이에 따르는 당쟁의 틈바구니에서 이씨 조선에 대한 민중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암담해 하는 민중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기 위해 당시의 선각자는 《정감록》을 빌려서 비

록 이씨가 결단이 난다 할지라도 정씨가 있고 정씨 다음에는 조씨, 범씨, 왕씨가 있으니 우리 민족의 생명은 세세토록 이어나갈 것이라는 신념을 심어 준 것이다. 이것은 《정감록》이 순기능적인 역할도 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감록》은 흔히 태후와 신비에 잠긴 난세의 예언서요, 민중 신앙의 복음서로 민간에서는 받아들여 왔다. 이 땅에 변혁적인 역사적 기운이 감돌 때마다, 민중의 의식은 거의 전통신앙으로까지 화한 음양지리설 앞에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았다. 암암리에 변혁의 기운이 힘을 얻어가는 시대적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민심을 당혹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의 비운과 욕구불만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와 그 역사에 대처하는 미래의 처방을 독단과 마력 있는 호소력으로 설계해 준 미래의 예언서가 《정감록》인 것이다.

그리하여 《정감록》은 고려의 쇠망과 이씨 조선의 흥망을 예시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며 영원히 계승될 것처럼 보이는 봉건왕권을 합리적인 철학적 예증을 빌려 부정·변혁하려는 혁명정신의 이론서가 되기도 하고, 흔들리는 민심을 새로운 가상의 왕국 정씨 조선의 전설로 몰고 가려는 반역적인 사상서가 되기도 했다.

합리론보다 미신적 내용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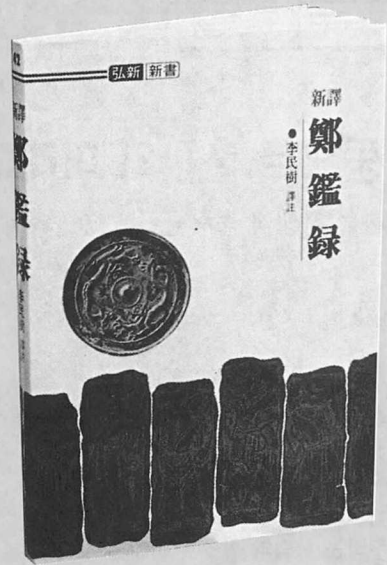
신라 말엽 조정이 어지러울 때 도선이 들고 나온 《도선비기》, 고려 때 묘청의 팔관 사상, 이씨조선 건국과정에서 정도전의 풍수지리설, 이인재, 홍국영, 정여립, 정희량 등이 반란의 명분으로 내세운 조선 왕조 말세론, 그리고 동학사상 속에까지 이 《정감록》적인 민중사상은 깃들여 있다.

임신년(壬申年)인 1812년에 홍경래 등은 그 해에 서북지방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세웠다. 그러던 중에 부하를 시켜 이런 소문을 퍼뜨렸다.

- ① 一士橫冠(한 선비가 갓을 빼딱하게 썼다)
- ② 鬼神脫衣(귀신이 옷을 벗었다)
- ③ 十疋加一尺(열필에 한자를 더했다)
- ④ 聖諱有兩足(성인의 이름에 두 발이 달렸다)

이것은 《정감록》에 수록된 열여덟자를 써서 이 해에 난리가 난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풀이하면 ①은 선비가 갓을 빼딱하게 썼으니 '壬'이 되고 ②는 귀신(神)이 옷(衣)을 벗었으니 '申'이 되며 ③은 十疋은 '走'가 되는데 走에 一尺을 더했으니 '起'가 되며 ④는 성휘(聖諱)라 함은 공자의 이름을 뜻하는데 공자 이름인 구(丘)에 두 발을 달면 '兵'이 된다. 곧 '임신기병(壬申起兵)'이 돼 임신년에 난리가 남을 뜻하게 된다. 이렇게 파자를 꿰맞춘 것으로 써 민심을 선동해 임신기병은 운명적으로 일어나게 됨을 믿도록 했다(이이화, 《이이화의 못 다한 한국사 이야기》, 푸른역사).

《정감록》의 내용은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풍수설에 따라 점복으로 예언된 피난처에서만 지극한 복락을 누릴 수 있으며, 궁극적으



《정감록》은 지은이가 알려지지 않았고 편찬연대 역시 정확하지 않은 위서지만, 누대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 이유는 《정감록》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꿈꿨던 민중의 염원을 담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로 이씨 왕조가 멸망하고 정씨의 성을 가진 진인이 출현해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리라는 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미래에 올지도 모르는 멸망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제시되고, 동시에 그 피난처는 이상세계가 되는데, 그에 대한 동경이 《정감록》 전반에 걸쳐 흐르고 있다. 《정감록》에 새겨진 기본사상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며 역대 왕권 지배세력이 가혹하게 탄압하고 금서조치를 내렸지만 꾸준히 민간에 전승돼왔던 까닭은, 현세를 벗어나서 계명산천을 맞이하려는 민중의 염원이 바탕에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를 서술하는 기법면에서는 직설적인 표현을 피하고 은어나 우의적인 이야기, 시구·한자를 교묘히 해체시켜 그 의미를 캐내는 파자(破字)를 사용해 해석하기가 어렵거나 애매한 표현이 많다. 무엇보다 이 사상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 사람들의 합리적인 이성에 호소하는 보편타당한 논리를 따르지 않고, 자연·지리적 조건을 음양오행설과 결부지어 해석한 미신적인 풍수지리설이 폭 넓게 원용되고 있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정확한 지은이도, 편찬연대도 알려지지 않은 위서가 누대에 걸쳐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책은 《정감록》 외에는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